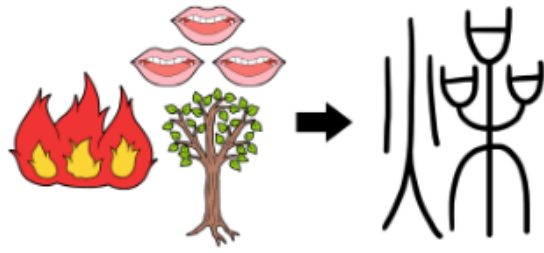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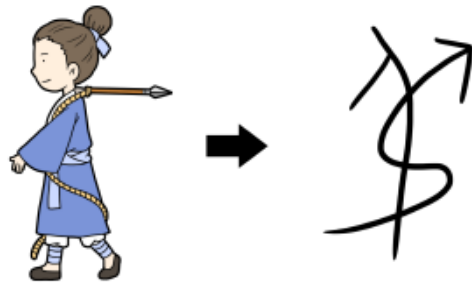
燥

마를 조

燥자는 '마르다'나 '애타우다', '초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燥자는 火(불 화)자와 皃(울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皃자는 나무 위에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울다'나 '떠들썩하다'라는 뜻이 있다. 나무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은 다급함이나 초조함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燥자는 이렇게 초조함을 연상케 하는 皃자에 火자를 더해 가뭄으로 세상이 타들어 가는 초조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燥	燥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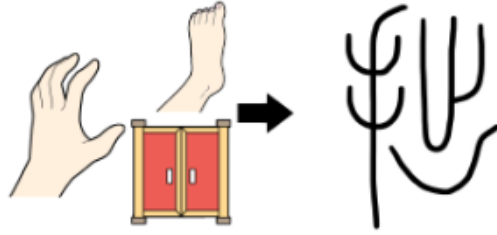
弔

조상할
조:

弔자는 '조상하다'나 '조문하다', '매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弔자는 弓(활 궁)자와 丨(뿔을 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弔자를 보면 人(사람 인)자를 곤으로 둘러친 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곤이 달린 화살을 몸에 지닌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시신을 숲에 내다 버리는 장례풍습이 있었는데, 弔자는 조문을 가던 사람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활을 들고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弔자는 '조상하다'나 '조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弔	弔	弔	弔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拙

줄할 줄

拙자는 '옹졸하다'나 '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拙자는 手(손 수)자와 出(날 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出자는 발이 입구를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拙자는 본래 '둔하다'나 '서툴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나가다'라는 뜻의 出자에 手자를 결합해 '손이 나가다,' 즉 '손재주가 별로이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정밀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이 자주 벗어나간다는 것을 出자를 응용해 표현한 것이다. 拙자는 후에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어리석다'나 '옹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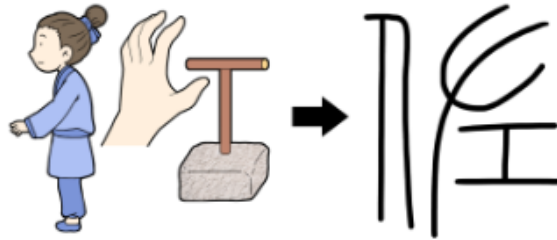
拙

소전

拙

해서

회의문자①



佐

도울 좌:

佐자는 '돕다'나 '보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佐자는 人(사람 인)자와 左(왼 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左자는 손에 도구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왼쪽'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왼쪽을 뜻하는 左자에 人자를 결합한 佐자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란 높은 사람을 곁에서 보좌해주던 사람을 말한다.

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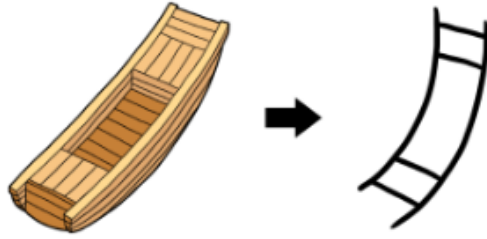
소전

佐

해서

3
-
235

상형문자①



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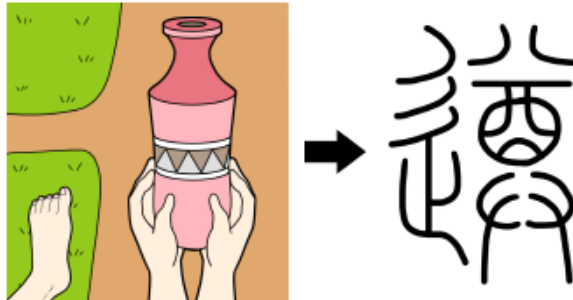
배 주

舟자는 '배'나 '선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舟자는 조그만 배를 그린 것이다. 강줄기가 많은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수로가 발달했었다. 강에는 여러 종류의 뗏목이 떠다녔지만, 그중에서도 舟자는 1~2명만이 탑승할 수 있었던 조그만 배를 그린 것이다. 이 배는 돛 없이 노를 저어 움직이던 것이었기 때문에 舟자의 상단에 있는 점은 노가 생략된 것이다. 이처럼 舟자는 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배의 종류'나 '움기다', '움직이다'와 같은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舟자와 丹(붉을 단)자는 매우 비슷하게 그려져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
-
236

회의문자①



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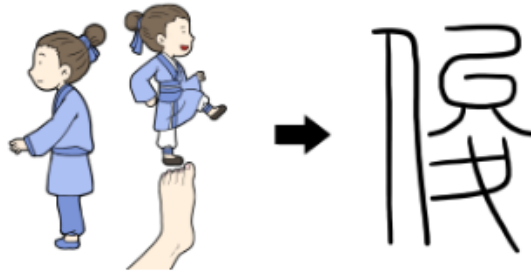
좃을 준:

遵자는 '좃다'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遵자에서 말하는 '좃다'라는 것은 존경하여 온순히 따라간다는 뜻이다. 遵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尊(높을 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尊자는 제사 때 사용하던 술병을 양손에 받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존경하다'나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다. 遵자는 이렇게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尊자에 辵자를 결합한 것으로 존경하기에 순순히 따라간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소전	해서

3
-
237

회의문자①



俊

준걸 준:

俊자는 '뛰어나다'나 '걸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俊자는 人(사람 인)자와 夊(천천히 걷는 모양 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夊자는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천천히 걷다'라는 뜻이 있다. 夊자에서 말하는 '천천히 걷다'라는 것은 느릿하면서도 기품 있는 걸음걸이를 뜻한다. 이렇게 기품 있는 걸음걸이를 뜻하는 夊자에 人자를 결합한 俊자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당당하다'나 '품체가 있다'라는 뜻이다.

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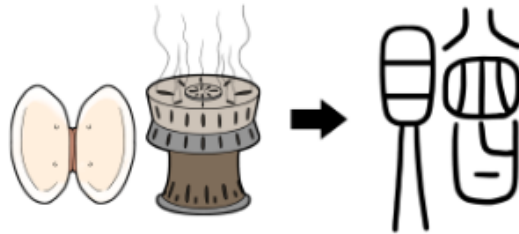
소전

俊

해서

3
-
238

회의문자①



贈

줄[送]
증

贈자는 '주다'나 '보내다', '선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贈자는 貝(조개 패)자와 曾(일찍 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曾자는 찜통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일찍'이나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贈자는 이렇게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曾자에 貝자를 결합한 것으로 '재물을 더해주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贈자는 선물이나 마음, 감정을 남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주다'나 '보내다', '선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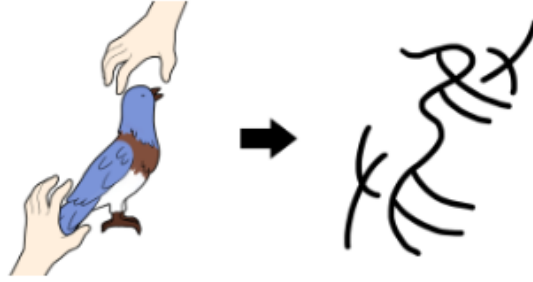
贈

소전

贈

해서

회의문자①



只

다만 지

只자는 '다만'이나 '오직', '겨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只자는 口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지만 '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只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손 사이로 隹(새 추)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새를 포획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只자는 본래 '새 한 마리'라는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일찌감치 隹(새 한 마리 척)자나 祗(다만 지)자, 祗(땅귀신 기)자의 약자로 쓰이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약자란 획이 복잡한 글자들을 단순화 시켜서 쓰는 방식을 말한다. 只자에 '외딴'이나 '새 한 마리', '오직', '그러나', '어조사'등과 같이 다양한 뜻이 있는 이유도 只자가 다른 여러 글자의 약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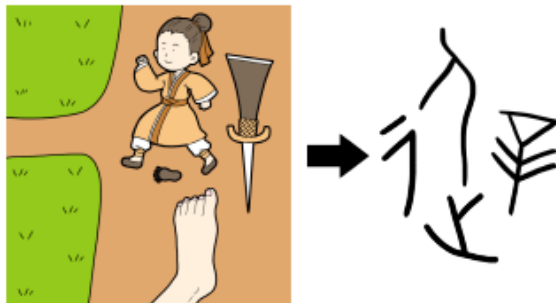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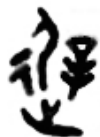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遲

더딜/늦을 지

遲자는 '더디다'나 '늦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遲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犀(무소 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遲자는 '더디다'라는 뜻을 가진 遲(더딜 지)자가 잘못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더디다'라는 뜻은 辵자와 犀(설 서)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금문에 나온 遲자를 보면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옆으로 辛(매울 신)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한자에서 辛자는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이것은 하인이나 노예의 움직임이 '더디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하인을 하대했던 고대의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보인다. 그래서 본래 遲자가 '더디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소전에서는 이체자(異體字)의 하나였던 遲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